

고은 불교대하소설



그 사내의 바다

그런데 그의 뒤를 쫓는 자가 있는 것 같았다. 막 갈대밭으로 그가 들어가려는데 그의 뒤에 '싹!' 하는 소리가 났고 잠을 재떨리 누이는 소리도 났다.

사내의 동작은 실로 괴와 기운이 좋은 들짐승의 본능을 그대로 닮아 있어서 그가 있는 곳에서 훨씬 떨어진 곳의 새장강을 위에 굽은 몸을 힘껏 던져 쫓음! 소리를 냈다. 그의 뒤를 쫓던 무리들이 몸을 숨기고 있다가 그의 풀밭에 던진 소리에 고개를 돌리는 사이 사내는 갈대밭을 재빨리 헤치고 나아갈 수 있었다.

그곳은 청나라 군영이 있는 대안(對岸)을 두고 이쪽에서 할부로 거동을 보일 수 없었다. 국경이라고는 하지만 조선영토에 대한 청나라의 영향력 있는 감시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이용해서 사내는 그 국경 지대가 어느 만큼 그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으로 삼았던 것일까. 그는 그곳에서 한가로이 지난번 비로 풀살이 빨라진 강물을 애써 태연히 바라보고 있었다.

더이상 뒤를 쫓는 자의 인기척은 없었다. 그는 다시 갈대밭으로 들어가 갈대줄기를 헤치기 시작하였다.

"아니!"

사내는 놀라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갈대숲에는 책색이 귀신형으로 된 여자 다섯이 개별진흙을 묻힌 그대로 서로 엉겨 있었다.

"무엇하는 것들이냐!"

라고 사내가 재빨리 호기를 띠어 말하였다. 그것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놀라움

을 감춘 호기였다.

"살려주십시오."

라는 가녀린 말 한 마디가 그의 호기에 대한 반응이었다.

"내가 살리고 죽이고 할 일이 아니다. 너희들이 무엇하는 것들인가만을 아실지 고하면 되느니라."

로 거기 앉아 있었다.

그때 강 건너의 청나라 초소에서 조종 소는 소리가 났다. 총소리는 두번났다.

사내가 갈대밭을 헤치고 가서 압록강 북안을 살폈다. 청나라 병사가 상사와 함께 오리 한 마리를 쏘았고 그 오리를 건지기 위해서 낙배를 물고 있었다.

그는 다시 여자들이 숨어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총소리 때문에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었다. 그 때문에 한쪽의 호밀떡을 먹은 뒤의 부족과 만족의 느낌조차 걸어치운 채 다시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아무일도 아니다."

사내는 여자들에게 하대(下待)의 말씨 그대로였다. 자네희 보니 개별총으로 범박한 죄를 짓고 있어도 매우 아름다운 얼굴이었을 터이다. 그리고 본즉 후술근한 저교리가 늘어붙은 어깨나 가는 허리 따위가 들알이나 막알을 하는 여자 같지 않게 세련되어 있었다.

"나는 홍장군 병사였다가 이렇게 불쌍하게 내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여기까지 도망해 왔다...내 동료들은 거의 자승으로 갔다..."

이제 사내는 이런 사실을 말해도 좋을 만큼 대담한 태정이 되었다. 아니 그 벗장이란 자포자기와의 안락이기도 하였다.

그 말에 잇달아 한 눈망울이 유난히 시꺼먼 여자가 입을 열었다.

"소침들은 정주의 가생들입니다. 정주목사 이근주(李近周)나라를 받들다가...소

침들도 홍장군에 대응해서 정주성문을 열기 위해서 풀려 갔었습니다...그런 뒤 목사까지도 관인(官印)과 병부(兵符) 따위 다 내버려두고 풀 하나만 말에 의지하여 도망쳤습니다."

"하이."

"그 뒤 소침들도 홍장군 군사들을 맞이하여 술과 밥을 집대하고 함께 광안도 외 거를 기뻐하다가 다시 관군에 몰려서..."



87

"공연한 짓을 했어. 사람이든 짐승이든 나무든 고기 한마리든 이름이 없어야 하는 판에...아니 내 이름조차 버려야 할 판인데 이름을 붙여주다니..."

갈 수 있었다. 그곳이 의주방을 비껴선 용암포 부근이었다. 용계 길을 피할 수 있어서 어떤 기합의 눈도 만나지 않았던 것이다.

사내는 여자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였다.

"나는 내가 갈 길이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야말로 내 길에 함께 할 수 없으니 어찌라...다만 너희들이 목사나 현감을 시중 들었으니 그 대신 이 일대 장사꾼들을 시중드는 것도 과히 무리는 아니다. 장사꾼 중에는 목사 따위보다 간담이 크고 포부가 커서 한 고을은 고사하고 조선과 청나라를 점다하고 사는 대상(大商)도 있으니 그들과 더불어 중원을 농(弄)함이 적편찮으리라."

이렇게 말한 뒤 그들은 용암포의 한 행수에게 넘겨 행수의 별채에 몸을 의탁케 하였다.

사내는 목욕시켜서 새 옷을 갈아입혀 놓은 즉 배어난 인물인 그 기생들을 바친 댓가로 바로 그 행수의 상단(商團)에 속할 수 있었다.

이 일대의 상단이란 제질적으로 한양에 대한 반골이기도 하지만 그 상단이 연경(燕京)이나 남양의 여러 포구를 상대로 하는 무역의 이익 때문에 온갖 탐학의 관리들을 살아하고 있었다. 그런 상단에는 사내나 기녀를 맡고도 홍장군의 병사였던 자나 간부까지도 숨어들어 있었던 것이다. 사내가 그 상단의 모험적인 발달에 들

.....

"노영(露永)이라 합니다...성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식인지라...어머니는 들명장수였다 합니다. 본디 천민인 자라 홍장군을 신령으로 섬겼습니다."

"이 도랑에는 귀천이 없소. 그리고 살인한 악인도 좋은 일을 많이 한 선인도 똑같이 공부하는 곳이오. 성이 없는 것이야 차라리 잘된 일이오. 내가 새로 성과 이름을 지어줄테니 그것으로 행세하구려."

"예."

"석대해(釋大海)...석가모니불의 큰바다라...이제부터 성은 석씨요 이름은 대해로 하구려. 그대가 바다를 떠돌다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대해라는 이름이 어울리기도 하겠소."

"감사하옵네다. 스님."

"가서 우녀도인이나 소색행자에게도 새 이름을 알려주구려."

인답은 사내 대해를 저 아래 본채인 갈대지붕의 법당으로 보낸 뒤 혼자 중얼거렸다.

"공연한 짓을 했어! 사람이든 짐승이든 나무든 고기 한 마리든 이름이 없어야 하는 판에...이름을 하나 후로 붙여주었으니...그저 부를 일이 있으면 어이잇하면 되는 것인데...아니 내 이름조차 버려야 할 판인데 이름을 붙여주다니..."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데 갈대지붕 부근에서 이제까지 이 섬에서 들어본 적이 없

"내가 새로 이름을 지어줄테니... '釋大海'로 행세하구려"

어가 청나라 정부나 조선 관리의 눈을 속여 잠상노릇을 하기 시작한 이래 그의 수완이 소문이 날 정도가 되었는데 청나라 장사꾼과의 시비 끝에 머리를 상해서 이따금 실성한 상태가 되었던 것이다.

그 뒤로 산동반도에서 떠난 배가 폭풍을 만나 사내는 내내 하나에 동료들과 타고 무작정 동으로 동으로 노를 저어갔다. 끝내 두사람은 죽어서 파도머리에 던져 물었고 혼자만 살아 남은 그는 그때부터 미처 저승의 유황(硫黃)연기도와 같은 짙은 바다 안개 속을 헤매다가 무유도의 구조로 살아날 수 있었다.

사내가 자신의 이름을 밝힐 때까지 인답이나 우녀는 그에게 이름을 묻지 않았다. 그렇게 되자 소색형지도 이름없는 그 사람의 뜻마디 말을 나누는 일이 낯설었던 함부로 이름을 물어 볼 처지가 아니었다.

사내가 인답에게 말하였다.

"소생의 성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작 성명부터 알려드리려했습니다만..."

는 노래가 들리는 것이었다. 풀림없이 사내 대해의 소리였다. 듣자하니 귀에 솔깃한 것이었다.

"저런! 제법일세 그려. 저 작자가 보살의 화신으로 여기에 왔단 말인가?"

한번 죽고 한번 살아보이라 한번 굶고 한번 넉넉해보이라 한번 높고 한번 천해보이라 한번 뜨고 한번 가리안해보이라...

(一死一生 一貧一富 一貴一賤 一浮一沒)

그런데 그 노래 내용보다 그 노래송씨가 더욱 놀라운 것이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의 풍상으로 이루어진 탁성(濁聲)을 넘어 마치 붓글씨 같림(渴筆)같이 새 먹물을 듬뿍 묻힌 글씨처럼 저녁 밀물같은 낭랑한 소리였다.

그림·조항숙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관은 독자 여러분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에서 찾으십시오

● 생활용품 ● 개인결제
● 불교관련용품 ● 불교보훈, 소서
● 저서출보 ● 인쇄
● 각종행사 ● 신상출시

● 신의 (02)737-8881 (광고국)
팩스 (02)737-0697

포교당 안내

소재: 중랑구 망우동 2층 30평 방3개 대로번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900만원
☎ 406-1542
호출기 012-759-5052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소재: 경기도 용인
사찰명: 광재사
- 40-50대 보살님으로 사찰에서 함께 하실 분을 모십니다.
연락처: 0336) 34-0664

사찰부지 및 실버타운 최적지

◆ 서울근교 (잠실역에서 40분거리)
◆ 정남향, 자연경관 수려 (저수지 근접)
◆ 120평~2500평 (평당 10만원)
◆ 형식 차량대기 현당당사

연락처 TEL. 420-5474-5
B.B 012-272-0025 안태진

광고·출판 대행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스님과 불자 여러분의 문의와 상담을 전국 어디든지 환영합니다.

◆ 광고대행 ◆ 신문대행
◆ 기획출판 ◆ 고급인쇄

사찰에서 필요한 각종 홍보물을 전문적으로 기획, 편집, 제작도 대행해 드립니다.

한국비전 전화(02)737-8891~3
팩스(02)737-8894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 木材放火劑 (화재예방용)
■ 木材활열방지제 (갈리짐 방지)
■ 木材방충·방부제
■ 木材탈취제 (청균균제거)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B/D (을지로 2가)
전화: (02)266-2629
팩스: (02)266-2679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척추교정·지압 시술 및 개인지도 (CHIROPRACTIC)

● 체통교정교육대 ● 척추 및 각 관절 교정법
● 척·척디스크, 신경통
● 관절염·골증·방사선치료
● 비만·관리·자율성
● 운동요법·전장·거담법
● 시술도·명령법

장심수 건강연구원
임구장역 543-7306

기도·회향 보시 방법지도 지장경독송법

참회·업집소멸과 자녀교육에 도움
가족법회, 건강증진
광비위사회교육문제연구소
종로구 인사동 179-2 (02)739-6007-8

보리수

취급 | 각종수입항, 염주 | 일체 품목 불교약세사리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 778-5345, 팩스: 777-1917

탁자, 단집, 범상, 문짜,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 범상(대인): 대계곡의 범상, 정암
● 중주(정미): 대운천 수미단 범상 경사
● 석왕(대인): 대운천 수미단 범상 경사
● 석왕(대인): 대운천 수미단 범상 경사
● 석왕(대인): 대운천 수미단 범상 경사
● 석왕(대인): 대운천 수미단 범상 경사

대전(전송)공예사
한도 011-282-4609
지.팩 02-488-4809
문.전 0346-671-9538
호.호 012-210-1401
趙 龍 玉 장

사찰운영하실분

위치: 경남 함안군 출곡면 (대구에서 1시간거리)
부지: 1400평 법당: 12평
요사채 20평 (방 3개)

사무실: 12평 (방 2개)
주자차: 200평
● 교통편리, 산세수려
● 도량내 연못 조경 완비
● 지장보살 기도 도량

가격은 문의후 별도 협의의 연락처 0599-33-4802

여직원 모집

가람기획에서는 다음과 같이 용모단정하며 여직원을 모집합니다

· 다음
· 30세 미만
· PC가능자

문의처: 가람기획 ☎ 720-5121

전통불교의식강좌안내

불교 기초적인 의식과 전문 의식(법배, 계사, 불공)을 배우고자 하는 스님은 본사에 신청 바랍니다.

· 모집인원: 약간명, 개별지도함
· 신청기간: 7월23일~8월10일까지
· 강사: 東洲, 元明 스님

홍원사 TEL. 822-1990, 1995
FAX. 02) 822-1996

神祕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선녀궁합, 학생적성
☎ 738-2045, 2046
현대 불교 신문사 알
韓國民俗哲學研究所